SK㈜ "2000억원 규모 자사주 소각… 안정 운영 최우선"

SK 제32기 정기주주총회

장동현 "주주환원 정책 실천 옮겨"
주주가치 도움 되는 방향으로 고민
추가 투자 리소스 확보 시기 조정 중

SK 주주총회. /SK 제공

SK그룹의 투자형 지주회사 SK㈜가 약 2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전량을 소각한다. 또 배당일 관련 정관도 새롭게 설정하며 기업 주주가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자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장동현 SK㈜ 부회장은 29일 SK서린빌딩에서 진행된 '제32기 주주총회' 직후 열린 주주간담회에서 "SK㈜가 지난해 사들인 자기주식 1.3%(보통주 95만1000주·1997억6300만원 규모)를 모두 소각한다"며 "지난해 3월 정기총회서 약속한 주주환원 정책을 실천에 옮겼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일부 주주가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더 많이 소각해줄 수 있냐는 질문에 이 성형 SK㈜ 사장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선 소각 후 효과가 있을지 의견이 갈린다. 회사 주주가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자사주 관련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소각 예정일은 주총 이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어 ▲배당일 관련해서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 배당 기준일을 설정하는 안건 ▲재무제표 승인 ▲장동현 대표이사 부회장·이성형 최고재무책임자(CFO)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박현주 법무법인 세종 선임 외국 변호사의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5개 안건이 통과됐다.

이후 SK㈜는 올해 주요 사업성장 전략을 주주들에게 설명했다.

장 부회장은 "높은 시장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전문회사로서 안정적 운영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며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기반으로 변화와 위기 속에서 발생할 기회를 적시에 선점할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주주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때 투자를 더 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질문에 장 부회장은 "그간 투자한 사업 외 추가 투자를 위한 리소스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 시기도 조정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장 부회장은 SK그룹 차원에서 속력을 내고 있는 '파이낸셜 스토리'도 언급하며 차세대 선제 투자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장 부회장은 "현재 SK㈜가 보유한 SK 멤버사 포트폴리오의 넷에셋밸류(NAV) 하락 발생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SK㈜ 기업가치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웠다"고 말했다.

장 부회장은 자기주식 상여와 관련해서는 "상여금은 현금에 더해 자사주를 추가로 지급하는 개념이 아니라, 책정된 상여의 일부를 현금 대신 자사주로 주는 것"이라며 "회사 자산(현금)은 플러스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K는 향후 첨단소재 투자 부문에서 ▲반도체 소재 분야를 확장하고 ▲배터리 소재는 리튬메탈 배터리 ▲탄소나노튜브 등 차세대 소재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어 전력반도체 분야에서 ▲화합물 반도체 사업 확장도 지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탄소 배출 축소와 제거 관련 사업 기회도 발굴할 예정이다. 디지털 투자 부문에서는 전기차 충전과 모빌리티 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인공지능(AI), 웹3 등에도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포스코 베테랑 직원들, 中企에 맞춤 컨설팅

동반성장지원단 출범식 행사 개최
올해 10개 기업 연말까지 개선 실시

포스코가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해주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포스코는 중소기업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동반성장프로그램인 '동반성장지원단'의 2023년 출범식 행사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포항 본사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김용수 포스코 구매투자본부장, 김현태 스타머트리얼 대표, 김재국 한국엠엔씨 대표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포스코는 작년 동반성장지원단 활동 성과를 발표하고 올해 컨설팅 계획을 공유했다.

동반성장지원단은 각 분야에서 평균 25년 이상 근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8명의 포스코 리더급 베테랑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개발이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이들의 성장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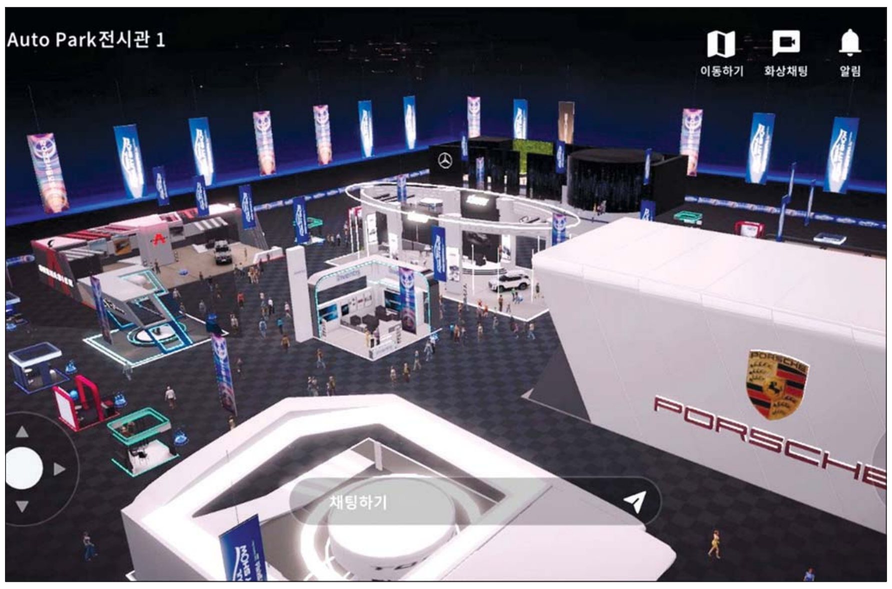
지난 2021년 출범한 이래 지난 2년간 총 49개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앞서 수행한 과제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 ▲안전·에너지 등 ESG 현안 해결 ▲설비·공정 개선 ▲기술개발·혁신 등 총 4개 부문에서 총 176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환경 구축을 위한 개선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올해는 1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월까지 정밀진단을 거쳐 연말까지 개선과제를 실시하고 성과를 측정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그룹 각 계열사도 회사별로 특화된 전문성을 살려 동반성장지원단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해외 네트워크와 마케팅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한다.

김용수 구매투자본부장은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참여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 조점을 맞추는 것이 동반성장지원단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컨설팅을 통해 각 기업이 당면한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스코는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성과공유제 확대, 스마트 팩토리 구축지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하며 중소기업을 계속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서울모빌리티쇼 공식 메타버스 앱.

"메타버스서 서울모빌리티쇼 체험해요"

KG모빌리티·벤츠 등 20여개社 참여

국내 최대 규모의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인 '2023 서울모빌리티쇼'를 메타버스(3차원 가상공간)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됐다.

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오는 31일부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3 서울모빌리티쇼'를 메타버스 가상 공간을 통해 관람할 수 있는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애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KG모빌리티, 마스타자동차, 메르세데스 벤츠, 포르쉐 등 주요 완성차 브랜드와 부품·용품 업체 20여 개사가 참여해 3D 가상 공간에 부스를 꾸린다.

이용자들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하는 자동차의 모델, 라인업, 트림, 외장 및 내장 디자인 등을 3D 모델로 확인할 수 있는 컨피규레이터(Configurator)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또 모바일 티켓, 시승예약, 현장 라이브 및 VOD, 전시장 360 가상현실(VR), 온·오프라인 이벤트, 참여업체 정보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 모빌리티의 생태계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메타버스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메타버스 앱을 통해 모바일 티켓 구입부터 현장 라이브, 3D 쇼룸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람객들이 보다 편안하고 즐겁게 전시회를 관람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서울모빌리티쇼는 'Sustainable·Connected·Mobility(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을 주제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오는 3월 31일(금)부터 4월 9일(일)까지 총 10일간 개최된다. 총 전시규모는 5만3541m2로 지난 행사(2만6310m2)보다 약 2배 이상 확대됐으며, 전 세계 10개국 160여 개 기업·기관이 참가한다. 전기이륜차와 UAM 등 이동수단을 활용한 콘텐츠와 미래첨단기술이 적용된 모빌리티 산업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한편 서울모빌리티쇼는 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OICA)가 공인한 국내 유일 국제전시회로 1995년 이래 2년마다 열린다. 그동안 서울모터쇼로 불린 이 행사는 미래차와 로봇, 통합이동서비스(MaaS) 등 모빌리티가 점차 확장해나가는 점을 고려해 2021년 서울모빌리티쇼로 이름을 바꿨다. /양성운 기자

두산에너빌리티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공급

한국수력원자력과 약 3조 규모 계약

두산에너빌리티가 한국수력원자력과 약 2조9000억원 규모의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신한울 3·4호기에 들어가는 원자로, 증기발생기, 터빈발전기 등 핵심 주기기를 제작·공급한다. 경북 울진군에 건설되는 신한울 3·4호기는 각각 2032년과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신한울 3·4호기에는 1400MW급 한국 표준형 모델인 APR1400이 적용된다. APR1400은 2019년 준공한 새울 1호기를 시작으로 UAE 바라카 원전 1~4호기, 새울 3·4호기에 적용되면서 성능, 안전성, 경제성 등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운영 과정에서 품질기준을 높이고 설계를 개선해 안전성이 강화됐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주기기 제작을 위해 국내 460여개 원전 협력사와 힘을 모은다. 주기기 제작에 필요한 소재, 부품과 제작 과정에 필요한 기계가공, 제관제작, 열처리 등의 업무를 국내 협력사에 발주할 계획이다. 지난 2월까지 450억원 규모의 일감을 선발주했고, 연말까지 2100억원 규모의 추가 발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이번 계약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물론 주기기 제작에 참여하는 원전 협력사 등 국내 원전 생태계 전반에 활력이 생길 것"이라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기대에 부응하는 완벽한 제품을 제작, 공급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원전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해운·자동차협회 상생협력 강화 맞손

해운업계 車 적재공간 제공 노력
자동차업계 안정적 수출량 공급

한국해운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해운협회-자동차협회 상생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해당 MOU는 29일 용산 노보텔 앰배서더 3층 신라룸에서 해양수산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에 양 단체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해운업계는 완성차업계에 적재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완성차업계는 해운업계에 안정적으로 수출물량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 여유 선복 및 시장정보 등을 공유하고 반기별 상생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